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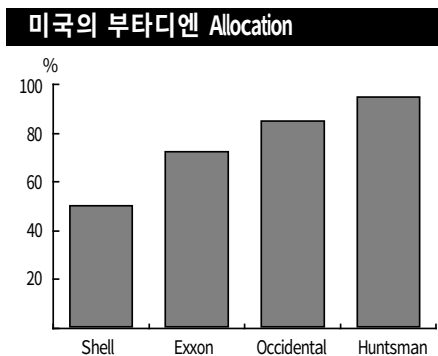
미국, 부타디엔 수급타이트

재고감소 및 생산설비 트러블로 ... 한국산 수입 러시

미국의 부타디엔 시장은 재고감소와 생산설비의 트러블로 수급이 타이트, 한국산 수입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미국은 97년 6월22일 Shell Chemical의 텍사스주 Deer Park 소재 올레핀단지 폭발사고로 Shell은 물론 다른 메이커들까지 50%의 Allocation을 실시한 바 있다.

Huntsman은 풀가동에도 불구하고 95% Allocation을, Occidental Chemical은 85%, Exxon은 70 75%를 실시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북미의 부타디엔 재고도 97년 3월1일 2억400만파운드에서 6월1일 1억1300만파운드로 감소했는데, 이는 저가체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부타디엔 수입은 96년 월평균 6500만파운드를 기록했고, 97년 1/4분기 7500만파운드로 증가됐으나 2/4분기에 3500만파운드로 급감했다.

이에 한국산 부타디엔 수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산 부타디엔 1600만파운드가 97년6월말 미국에 도착했으며, 2번째 1600만파운드도 7월중순 도착했다. 이 중 1/4은 멕시코로 공급됐다.

유럽산 부타디엔 가격은 파운드당 23.5센트로, 구매자들

<화학저널 1998/2/16.23>